



북한 기도회

2022년 11-12월





기도제목 1.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9월 말부터 연달아 대규모 군사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핵 투발용 미사일 발사 실험, 포 사격 실험, 대규모 전투기 훈련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딸을 대동하고 미사일 훈련을 현지 지도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여전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2.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경제 제재와 한미의 군사적 대응 강화 등 오히려 북한을 스스로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과 기독교 박해는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협상 대상으로서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억압과 군사적 위협이 아닌 인권 개선과 국가 운영 방향의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하루 속히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우상숭배와 인권 억압, 기독교 박해의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법 및 청년교양보장법 등 기독교 박해 명분이 되는 법률을 만들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황을 더 강력한 주민 통제와 기독교 박해의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박해로 인하여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월 13일 발표된 한미일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한국인 억류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4.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행히 9월 말부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최근 국제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에 따른 환율 폭등, 북한의 부족한 식량 생산 등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상황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혹독한 추위의 겨울철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힘든 겨울철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덧붙여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을 돕고자 애쓰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와 기독 NGO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5. 중국의 선교 환경 조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3기 확정 이후 지도부 교체와 함께 제로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이 계속될 전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지 시위” 등 중국 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중국은 상당히 빠른 템포로 코로나 방역을 완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면적인 코로나 정책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국의 코로나 방역 장기화에 따른 선교현장에도 긴장감이 심했습니다. 현지 체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누적된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중국에 체류하는 선교사, 사역자, 탈북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북한 선교 사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6.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최근 중국당국의 코로나 전수검사를 통해 단둥지역 거주 북한노동자의 수가 8만명이 확인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노동자의 해외파견을 금지하는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 노동자가 해외로 파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당국의 감시와 통제, 열악한 노동환경, 당국의 착취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깥 세상을 경험하며 북한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이들이 해외 경험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안목을 갖게 되고, 특별히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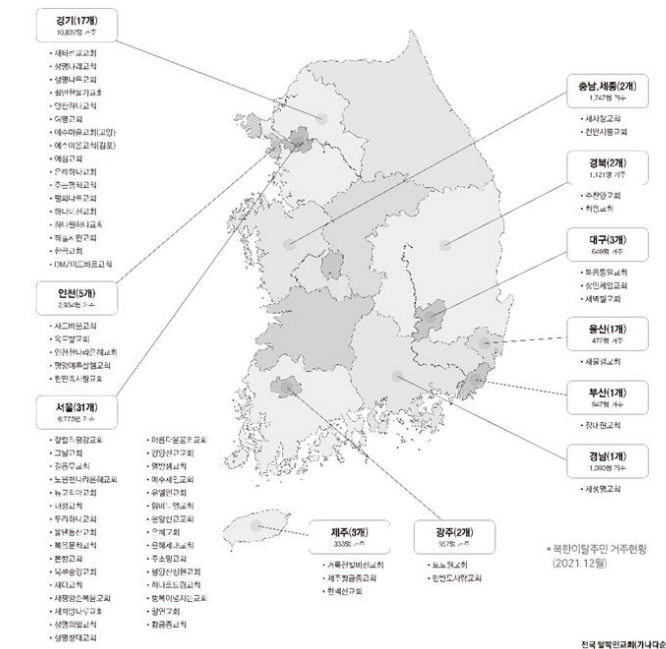


기도제목 7.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탈북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10월에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탈북민이 시신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1월 7일에는 탈북민 A씨(23)가 경남 김해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탈북민들을 찾아서 돌보는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이 필요하지만 탈북민 교회 중 상당수가 목회자 사례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출석교인수 감소 및 재정 악화로 큰 타격을 입었고 여전히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향한 영적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탈북민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탈북민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국 탈북민교회 현황 (2022. 5월)

한국에는 현재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져 있고, 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효과적인 복원전교는 바로 탈북민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국 탈북민교회(가나다순)
본문: 전국 탈북민교회 현황 (2022. 5월)에 따르면, 전국에 60여 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져 있고, 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효과적인 복원전교는 바로 탈북민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제목 8. 북한의 마약 근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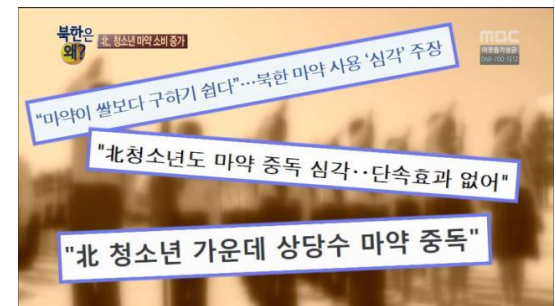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빙두(필로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21년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마약 범죄 단속 및 통제에 나서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 없는 통제 일변도 대응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와 새로운 공동체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마약을 의료용으로 찾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마약으로 고통 받는 탈북민들과 북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돌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마약 문제를 쉬쉬하는 것이 아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발생되는 연기를 얇은 관을 이용해



북한은...로 청소년 마약 사용 '심각' 주장

"마약이 썬보다 구하기 쉽다"...북한 마약 사용 '심각' 주장

"北 청소년도 마약 중독 심각...단속효과 없어"

"北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 마약 중독"



창

북한 자본주의 꽃 마약



기도제목 9.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도 올해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 프로그램 개편이 잘 이루어지고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